

이탈리아 민족주의: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



김 종 범 (대전대학교)
(utikim@hanmail.net)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있다.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과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논문을 구성하고 있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을 위해 리소르지멘토, 미수복영토 귀속운동, 파시즘 체제, 이탈리아 공화국의 탄생, 남부문제와 북부 분리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해를 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과 연계하여 이탈리아 민족주의 현대적 의미와 민족주의와 연계된 북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등을 국가 체계 안에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내용 등을 현재의 이탈리아 사회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어 : 이탈리아, 민족주의, 리소르지멘토, 파시즘, 분리, 통합 등

I. 서론: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기원

유럽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수준이나 내용과

유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치사회적 환경의 차이만큼이나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과 국가를 가치적으로 판단하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민족’이나 ‘민족주의’의 의미를 유럽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준으로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민족주의라는 개념이나 이데올로기가 1920년대 유럽의 파시즘 시대를 이끌었던 이념이라는 점에서 극우적인 해석이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1920년대 파시즘을 시작했던 무솔리니 체제의 시작이 민족주의 계열의 극우 정치인들과 군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 근대 역사에서 민족주의는 현재의 이탈리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출발점인 이념이라는 점에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유럽의 역사에서 이탈리아는 가장 중요한 지역적 토대이자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유럽 문화의 3대 요소로 꼽는 것들이 모두 이탈리아에서 시작하고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로마제국과 문명, 가톨릭과 문화, 르네상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탈리아는 근대와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역사적 경로를 밟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들과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이러한 문제들과 과제들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현대 이탈리아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통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과 현상들에 대한 설명과 연계성을 서술하면서 논문을 시작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할 개념과 현상은 리소르지멘토(Risorgimento)라고 하는 통일 운동이며, 두 번째는 통일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발생한 미수복영토귀속운동(이레덴티즘; Irredentismo)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파시즘(Fascismo) 체제의 등장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과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형성된 남과 북의 지역주의와 북부 분리주의 운동 등이 현재의 소수민족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파시즘의 잔재이자 극우 이데올로기의 상흔으로 여겨지는 현대 이탈리아 민족주의 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남아 있는가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네 개의 장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기원에 대한 간략한 개념 설명과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출발점이자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들과 현상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리소르지멘토와 미수복영토귀속운동, 파시즘 체제와 이탈리아 공화국의 탄생, 남부문제와 북부 분리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해를 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민족주의와 연계된 북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과의 연계성 등을 국가 체계 안에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내용 등을 현재의 이탈리아 사회 안에서 짚어보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A.D.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해 서유럽 제국이 멸망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탈리아라는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정치경제적인 사명이었다. 실제로 많은 이탈리아의 정치가들과 사상가들이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마키아벨리와 같은 이들은 실천적인 방식으로 통일의 방법을 설명하고자 했고, 바로 그 과정에서 근대 정치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라는 국가와 민족적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재등장한 것은 19세기 유럽 민족주의의 발흥과 함께였다. 다음 장에서는 19세기 이후의 이탈리아 통일 운동 과정으로부터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이탈리아 민족주의 기반과 전제 요인들

1. 이탈리아 통일운동(Risorgimento)과 통일의 역설¹⁾

유럽 민족주의의 절정이었던 1948년과 49년은 이탈리아에서도 커다란 반향이 발생하였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절대왕정으로 피에몬테 왕국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중앙집권적인 절대주의 국가로의 발전을 계획하였다. 카부르는 이러한 피에몬테 중심의 발전국가 입안의 절대적인 기획자였으며, 유럽의 국제정치적 질서와 열강들 사이에서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정치가였다. 카부르의 지도아래 1848년 헌법을 고수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과 근대적인 절대왕정 국가로의 준비에 힘을 썼다. 카부르는 유럽의 정치상황을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온건적 중도파를 연합하여 1852년부터 수상에 취임하여 피에몬테 부국론을 강조하였다. 카부르는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유럽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관세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외교를 통한 위상강화에도 힘써 1854년 발생한 크림전쟁²⁾에 참가하기도 했다.

1) 이번 항의 주요 내용은 김종법(2012)을 참조하여 논문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민족주의라는 주제에 적절하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법(2012)을 참조하시오.
2) 1854년 발생한 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의 극동지역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발발하였다. 이탈리아 역시 유럽에서의 외교적 입지강화를 위해 카부르가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였다.

크림전쟁의 결과로 고립된 오스트리아에 대항하면서, 피에몬테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이 구상된 시기가 이때였다. 카부르는 자신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 했지만, 나폴레옹 3세가 이탈리아 통일 자체를 반대하였다.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럽의 열강들은 지중해 연안에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교황 중심의 봉건적 구조를 가진 이탈리아 분할이 획책되었다. 1858년 7월의 비밀 회담으로 이러한 구도가 결정되었는데, 카부르와 나폴레옹 3세가 대표로 참석한 이 회담에서 이탈리아가 교황 지배하의 4개 지역으로 분할된 연방국가 설립이 합의되었다.³⁾ 그러나 협정조인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탈리아의 대(對) 오스트리아 전쟁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전쟁의 발발은 이탈리아가 아닌 오스트리아에 의해 일어났다. 1859년 4월 오스트리아는 롬바르디아를 넘어 피에몬테로 진격하였고, 나폴레옹 3세는 즉시 개입하였다. 그러나 마젠타(Magenta)와 솔페리노(Solferino)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나폴레옹은 카부르의 야심과 음모에 의혹을 품고, 오스트리아와 휴전협정을 맺었다.⁴⁾ 전쟁은 카부르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었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피에몬테는 다시 한 번 영토를 확장하였다. 중부 이탈리아 자치도시들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나폴레옹과 카부르는 독단적으로 밀약을 맺어 니스와 사보이를 넘겨주고 중부 이탈리아 자치도시들과의 합병을 인정받았다.

북부의 이와 같은 상황과 달리 남부, 특히 시칠리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다. 여전히 봉건적이고 중세적 전통이 남아있던 지주와 농민들의 관계는 급기야 여러 차례 걸친 봉기로 이어졌다. 이 중에서도 1859년 4월에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지주들에 대항해 일어난 농민 봉기는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통일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봉기가 일어난 뒤 시칠리아의 일군의 지식인들은 농민봉기를 정치적 혁명으로 이끌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가리발디에게 요청하였다. 마침 런던에서 돌아온 마치니와 그 일파들은 이를 실행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였다. 가리발디는 천인대(Mille)라고 불리는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시칠리아에 상륙하여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이 전쟁은 1856년 파리강화회의에서 이탈리아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오스트리아에 대해 지나친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영국의 견제로 카부르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3) 회담의 주요 내용은 피에몬테가 로마냐를 포함하는 북부 이탈리아를 병합하고, 토스카나 주변에는 이탈리아 왕국이, 로마와 그 주변 지역은 교황령으로, 나폴리 왕국은 존속시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프랑스는 니스와 사보이아를 이양받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국왕 엠마누엘레 2세는 자신의 딸과 나폴레옹의 사촌간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이 무산되었다.

4) 당시 카부르는 교황령을 합병하려고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오스트리아와의 양국전쟁이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프리시아를 주축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개입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에게 베네토를 넘겨주고 롬바르디아를 이양 받는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전쟁 기간 중에 이탈리아 중부의 자치도시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는 다시 이듬해 피에몬테의 합병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는 가리발디와 크리스피(Crispi)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군사적이고 외교적 역량과 당시 시칠리아의 정치적 상황⁵⁾이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 덕분이었다. 이렇게 가리발디는 시칠리아를 평정한 뒤 다시 본토까지 진격하여 10월초에는 나폴리에 입성하였고, 남부 전역을 회복하여 교황령과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당황한 카부르는 나폴리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피에몬테와의 합병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합병 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가리발디보다 먼저 교황령을 점령하기 위해 나폴레옹의 양해를 구하고 엠마누엘레 2세를 동원하여 나폴리 북부에 있는 테아노(Teano)까지 진격하였다.

여기에서 가리발디를 만나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가리발디가 점령했던 남부를 합쳐 로마를 제외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일단 통일의 기초를 다지자 이후의 이탈리아 국가는 피에몬테 왕국의 연장선 안에서만 논의되었다. 즉, 모든 지방의 제도와 법령 및 행정과 세금은 피에몬테 제도와 법령에 따르게 되었고, 이는 지배왕권의 교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결국 이탈리아 통일이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된 것이 아니었다. 지배계층과 통일운동의 주류가 내세운 것은 새로운 시대와 국가를 위한 이념이나 주의가 아닌 카부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중상계급 중심의 중도온건주의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다.

2. 이탈리아 남부문제와 지역주의의 시작⁶⁾

1861년 이탈리아의 통일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역설적 상황과 문제를 야기하였다. 대외적인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항의 미수복영토귀속운동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항에서는 대내적으로 발생한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남부문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뚜렷한 준비나 계획 없이 갑자기 실현된 피에몬테 중심의 이탈리아 통일은 태생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북부 중심의 산업정책에 끼워진 경제정책과 제도들은 국가 제도나 정책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국가’ 또는 ‘왕국’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남부의 지식인들과 농민들 모두를 혼란과

5) 당시 시칠리아에는 봉기를 지지하는 계층들 사이에 서로 다른 목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지주들은 부르봉 왕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목적을, 농민들은 지주와 부르봉 왕가의 억압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중간 계급들은 지역정부를 통한 정치적 주도권 획득이라는 현실적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통일이라든지 독립과 같은 이탈리아적인 정치적 목적들과는 거리가 있었다.

6) 이번 항의 중심주제인 남부문제는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현대에까지 이어지는 지역주의 문제의 출발점으로 분석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종범(2004; 2006)을 참조하시오.

어려움에 빠트리게 되었다.

피에몬테를 거점으로 하는 북부 중심의 국가발전계획은 상대적 이질성이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그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부르주아 지배계급과 지식인들은 자기합리화의 이론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지만, 이미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던 두 개의 지역, 산업화 과정의 북부와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회구조에 매몰되어 있는 남부의 격차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무지하고 정책적인 배려나 준비가 부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남부문제의 간극은 북부와 남부의 이질성을 더해가게 되었고, 지역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민족이나 국가와 연결하여 정치화 하는데 성공한 세력이 무솔리니와 파시스트 정당이었다.

파시즘 치하에서 남부라는 사회문제는 수면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파시즘이 몰락한 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곧 이탈리아공화국의 성립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낳게 되었다. 특히 종전 직후 이탈리아는 볼로냐를 경계에 두고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에 의해 군정기간을 거치게 되었고, 북부는 독일의 괴뢰정부였던 살로공화국(Saló)과 독일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세력에 의해 해방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두 개의 국가정체성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놀란 미국이 이탈리아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하면서 이탈리아공화국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정체(政體)의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국민투표의 문제는 그 정당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 이유는 투표 자체의 유효성 문제로, 전체 유권자의 50%가 넘는 유효 투표가 진행되었을 것인가의 쟁점이었다. 투표 결과는 약 200백만 표 차이(공화국 지지투표수: 12,717,000표와 군주국 지지투표수: 10,719,000표)로 공화국 지지자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백지 표와 무효표를 합해 과반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여건상 전체 유효 유권자의 수를 산정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나폴리에서의 시위 등의 혼란한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1946년 6월 18일일 논란 끝에 당시 기독교민주당은 이탈리아공화국을 선포하고 혼란을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군주국을 지지했던 남부의 주민들과 공화국을 지지했던 북부의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벌어졌고, 이는 지역문제가 더욱 격화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새로이 통합된 이탈리아 건설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는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구축이라는 목표 앞에서 의미를 잃게 되었다. 결국 이탈리아 북부 중심의 산업발전 계획이 집중적으로 실행되면서 북부는 다시 한 번 산업자본 축적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주국에 대한 미련을 가졌던 남부 대중들의 불만이나 파시즘 체제에서 무솔리니 등을 지지했던 일부 가톨릭 세력과 파시스트 잔재 세력들은 남부를 거점으로 정치세력화 하는데

노력했다. 집권당이 된 기민당 정부 역시 자신들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남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고, 확실한 지지기반 구축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기획했다.

이렇게 시작된 남부와 북부 간의 갈등은 집권당의 정책적 차별로- 예를 들면, 1950년 남부문제를 위한 정책적 해결책으로 남부기금(Cassa per il Mezzogiorno)을 설립하여 운영했으며, 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와 정부가 남부를 성장거점(poli di sviluppo)으로 상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도 했고, 1984년까지 존속되던 남부기금을 1986년 남부개발공사(Azienda per il Mezzogiorno)로 바꾸는 등의 정책 - 오히려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축적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이후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감소되었지만, 이를 대신한 새로운 지역문제와 민족주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동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서유럽 국가들로 이주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로부터의 유럽 이주 등이 확대되면서 서유럽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 발전되었다. 결국 이러한 내부문제는 이탈리아에서도 극우정당의 성장과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이 되었다.

흔히 ‘북부분리주의’ 운동이 확대되고 세력을 얻게 되면서 ‘북부동맹(Lega Nord)’라고 하는 북부분리주의를 주창하는 신나치즘 정당이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1861년 이탈리아 통일 이후 15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개의 이탈리아로 나누었던 남부문제라는 지역문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치적이고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중층의 사회 현상들과 문제들이 겹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적인 통합의 문제가 남과 북이라는 지역문제를 뛰어넘어 인종과 민족이라는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남부문제의 접근과 그 해결책 역시 새로운 기준과 방향에서 다가서야 할 것이다.

3. 미수복영토귀속운동(Irredentismo)⁷⁾

3-1. 이레덴티즈모의 의미

이레덴티즈모란 용어와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1866년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방을 통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 줄리아와 이스트라, 카르나로Carnaro,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등의 지역이 여전히 외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 아래서 ‘잃어버린 땅’에 대한 수복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이다.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이탈리아

7) 이번 항의 내용은 김종범(2007)의 연구를 논문의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반도로 국한되면서 반도 이외 이탈리아 문화나 이탈리아 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을 이레덴티스타(Irredentista)라 명명하고 본격적인 회복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레덴티즈모를 ‘실지회복운동’ 혹은 ‘미수복영토귀속운동’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⁸⁾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 진행형적이라는 점과 그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을 종합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굳이 한국어로 옮겨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지회복운동’이나 ‘미수복영토귀속운동’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레덴티즈모의 원어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용어를 원어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러한 이레덴티즈모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남티롤, 트리에스테, 게르츠, 이스트라(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령, 테시노(스위스령), 발레 다오스타(Valle d'Aosta; 이탈리아 영토), 달마찌아(Dalmazia; 슬로베니아 영토), 이스트라(Istra; 슬로베니아 영토), 니스(프랑스령), 몰타, 코르시카(프랑스 영토) 등이었다. 물론 이 지역 중에서 몇몇 지역은 이탈리아의 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지역도 있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어쩌서 해당 지역을 거론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이와 같은 미수복영토귀속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발생했던 유럽 민족주의의 발흥기였다. 당시 시대적으로 민족주의와 민족에 바탕 한 민족국가의 등장이 전 유럽을 휩쓸던 시대였다. 이탈리아 반도에 인접해 있던 국가들 역시 이러한 영향 아래 제각기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조금이라도 영토를 늘리려는 유무형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강대국에게도 해당되었고, 프랑스나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거나 간접적으로 영토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들이 바로 그런 국가들이었고, 이탈리아의 통일은 영토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1768년에 프랑스에게 양도된 코르시카나 1860년에 프랑스에게 양도된 니스나 1866년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방을 통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를 줄리아와 이스트라, 카르나로Carnaro,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등의 지역은 여전히 외국(오스트리아-헝가리 왕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8) 용어 해석에 대한 문제가 그리 쉽지 않은 이유는 이탈리아 내부의 학자들 사이에도 이 시기와 내용을 두고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마찌니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의하여 해석하는 입장은 이 운동의 시기를 1848년에 두고 있으며, 만텔리(Mantelli)나 코르도바(Cordova)와 같은 학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1866년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토가 축소되면서 이스트라, 카르나로Carnaro,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등의 지역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잃어버린 영토가 되었고, 이를 이레덴티즈모의 기원으로 삼는 경우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살바토렐리(Salvatorelli), 산도나(Sandona), 차보드(Chabod) 등이다. 이에 대하여는 Mantelli (1994), Salvatorelli(1969), Chabod(1951), Sandona(1932) 등을 참고하시오.

되었다.

〈그림 1〉 이탈리아 영토분쟁지역과 이레덴티즘모 지역



출처: <https://goo.gl/qGz8Kr> (검색일: 2018. 02. 20.).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 당대 이탈리아의 정치적 지도권을 쥐고 있던 피에몬테 왕국에게는 그다지 주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피에몬테 주변의 지역적 이해가 걸린 문제도 아니었고, 갓 태어난 통일왕국의 변영보다는 여전히 피에몬테 왕국의 발전이라는 연장선에서 국가를 경영하고 있던 온건파 자유주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그러한 점유가 그다지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점령된 지역의 반환과 수복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877년 마테오 레나토 임브리아니 (Matteo Renato Imbriani)가 미수복된 영토를 되찾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이레덴티즘모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국민적 관심사와 개념으로 발전했다.

이후 이탈리아 반도 통일과정에서 이들 이외 지역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미수복영토를 통칭해서 이레덴티즘모라 불렀고, 보다 국민적인 운동과 관심의 대상으로서 반환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요구했던 이들 미수복 영토들에 대한 반환요구가 일부분에 그치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식민지주의 등이 결합한 “다양한 민족주의”의 한 형태로서 발전하게 되었다.⁹⁾

9) 다양한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먼저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민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혼동의 난해함의 기준은 민족과 함께 사용되는 국민이라는 용어 때문이다. 국민국가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이탈리아에서 국민이라는 용어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3-2. 이레덴티즈모의 전개 과정

가장 먼저 이레덴티즈모가 조직적인 사회운동이자 지식인들의 정치적 지향점을 갖춘 조직으로 발전한 것은 앞장에서 거론한 임브리아니와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가리발디, 사피(Saffi), 카르두치(Carducci) 등이 중심이 된 일군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1878년 2월에 창간된 『이탈리아인들의 이탈리아(L'Italia degli italiani)』라는 이레덴티즈모를 지지하는 이들의 소식지를 통해서 해당 지역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이들에 대한 수복을 주장하면서, 이 소식지를 중심으로 일종의 결사체를 만들었다. 이들 이레덴티즈모의 동조자들의 민족적 감정에의 호소와 트리에스테와 트렌티노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대한 주장은 결국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되었고,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약속받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국동맹을 체결하면서 더 이상 오스트리아 왕국과의 갈등을 피해야만 했던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 이레덴티즈모 운동과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1882년 12월에 이레덴티즈모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인 굴리옴오 오베르단(Gulielmo Oberdan)이 교수형에 처해졌던 사건과 이레덴티즈모와 관련하여 수감되었던 프란체스코 쥐세페(Francesco Giuseppe)가 왕의 사면을 거부했던 사건들은 당시의 치열했던 이레덴티즈모의 전개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직접적으로 이들 이레덴티즈모를 탄압하는 반이레덴티즈모 정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자에 대한 체포와 와해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1889년 다시 한 번 이레덴티즈모를 주창하는 이들은 “단테 알리게리 협회(Dante Aligheri Societa)”를 창설하였다. 이 조직은 크리스피 수상의 집권 기간인 1889-1891년 사이에 자행되었던 탄압적인 국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확장된 규모의 전국적 운동으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국가주의자들은 프랑스와의 적절한 긴장감과 유지하고 공세적 방향에서 오스트리아 왕국의 지지를 받는 선에서

아니면 민족국가의 의미 역시 근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다면 이탈리아 민족 또는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고대 로마제국에서 르네상스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대 특히 리소르지멘토 이후 시기의 이탈리아 역사에서 ‘nazione’란 단어를 ‘민족’으로 ‘nazionalismo’를 ‘민족주의’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이탈리아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라는 사실에 있고, 역사적으로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해 통합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민족에 근거한 지방정부나 왕정은 존재했지만, 이탈리아 전체를 민족에 의해 통일된 민족국가가 나타났던 때는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의미상의 사용에서 어느 때에는 nazione나 nazionalismo를 민족이나 민족주의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역시 명확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용사의 오류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가능한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는 이레덴티즈모가 갖는 내용상의 의미 때문이며, 주로 보수주의적이고 우파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을 사용하겠다.

이들 지역에 대한 연방주의적 병합의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간접적인 시위나 주장의 개진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행사와 교류들을 조직해 내었다. 특히 1894년 트리에스테와 이스트라에서 이탈리아의 정체성 전시회를 개최한 일이나, 1898년 트렌토에서 단테 기념관의 설립을 “단테협회”가 주도한 사건 등은 이탈리아 문화를 해당 수복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노력이었다. 비교적 수세에 몰렸던 이들 이레네티스트들이 국면의 전환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가 시작하면서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수많은 민족주의 잡지와 지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레네티스트모가 국민적 각광을 받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주요 사상가들을 거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인물은 코라디니(Corradini, 1865-1931)일 것이다. 그는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에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전파에 노력하였다. 코라디니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킨 것은 『왕국II Regno』이다. 1903년에 창간한 이 잡지를 통해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보급에 힘썼으며, 이탈리아의 우파 지식인들을 민족주의 우산 아래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코라디니는 1910년에 이탈리아 민족주의 연합(Associazione Nazionale Italiana)를 창립하였고, 이 단체를 통하여 본격적인 민족주의를 표방하였다. 결국 이 단체는 1923년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파시스트 당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1911년에는 보다 많은 국내외의 지식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민족사상Idea nazionale』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그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다소 기이한 형태를 띠었는데, 먼저 그는 이탈리아인만으로 구성된 인민대중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자들을 결합시키고, 이를 조합이라는 형태로 구체화시킨 뒤에 부르주아 중심이 아닌 무산자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입각한 조합주의적 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국가의 완성과 성립을 위해서는 아프리카로의 식민지 확장과 정복전쟁을 통하여 국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실업자와 농민들의 식민지 이주정책을 활용하여 이탈리아의 전체적인 경제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19세기 이전까지 다소 분열적이던 이탈리아에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통일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유감스럽게도 파시즘과 결합하면서 전체주의적이고 전쟁 지향적인 파시즘 국가 등장에 상당한 이론적 기여를 했다.

코라디니와 함께 거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로 프레졸리니(Prezzolini: 1882-1982)를 들 수 있겠다. 그는 다른 사상가들이나 학자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들이 있는 인물이었다.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던 그는 20세기 초 민족주의와 파시즘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당대의 민족주의를 파시즘으로 전환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인물이다. 당대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크로체의 영향을 받았고, 다소 비타협적 입장을 보였던 학자이자 문인이었다. 그는 미래주의 운동의 이론가였던 파피니(Papini: 1881-1956)의 친구이자 동료로 파피니와 함께 『레오나르도(Leonardo)』라는 비평지를 1903년에 창간하여 1905년까지 활동했다.

그러나 프레쾰리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 이후인 1908년부터였다. 1908년에 그는 생디칼리즘과 전투적 크로체주의 그리고 민족주의 한데 모아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지 『라 보체La Voce』지를 창간했다. 『라 보체La Voce』는 1914년까지 활동하면서 당대의 주요한 사상가들과 문화론자들을 집필진에 포진시켜, 민족주의에서 파시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1914년 발발했던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것을 주장했던 참전론자로서 지원병으로 전쟁에 참가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논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일 포폴로 디탈리아(Il popolo d'Italia)』에 참여하여 소렐적인 생디칼리즘과 초기 파시즘을 연결하는데 중개 역할을 하였다.

이후에는 무솔리니와의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파시즘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파시즘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25년 이후에는 파시즘의 반자유주의적 성격과 전체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지면서 이탈리아를 등지고 파리에서 살았다. 다시 193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거주하였고, 컬럼비아 대학의 이탈리아어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시즘과 결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문학가로는 단눈치오(D'Annunzio, 1863-1938)를 들 수 있다. 그는 특이한 문학적 성향과 입장을 가졌던 이탈리아 데카덴티즘모Decadentismo¹⁰⁾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였으며, 모험가였고,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19세기 말부터 유럽에 불기 시작한 세기말 사상과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혼란한 사회, 불안정한 정치 등을 지켜보면서 인간 이성애 대한 회의와 신비스럽고 이상적인 삶을 동경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적 성향은 사회에 대한 반동과 질서의 이탈, 쾌락의 추구, 전쟁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성향을 니체의 초인사상과 연결시켰고, 이는 곧 이탈리아 민족을 이끌만한 새로운 초인을 고대하고 동경하는 문학 소재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이탈리아의 제 1차 대전 참전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고, 실제로 1915년부터 18년까지 자원하여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제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지

10) 데카덴티즘모를 하나의 주의나 용어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9세기 유럽에 나타났던 세기말 사상과 결합한 낭만주의와 퇴폐주의 등이 혼합된 부정적 의미의 사조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이를 하나의 주의와 경향으로 정리했으며, 이러한 데카덴티즘모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문학가가 바로 단눈치오(D'Annunzio)였다.

만, 연합국으로부터 약속한 땅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퇴역 군인들, 생디칼리스트,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의용군을 이끌고 피우메(Fiume)를 점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제국주의에 대한 옹호와 힘과 폭력을 예찬으로 이어졌고, 이탈리아 역시 이를 실현시킬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고 보였다. 또한 그 지도자는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인물이 아닌 인민과 대중을 이끌 영웅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단눈치오의 사상은 무솔리니의 등장을 용인하고, 제국이라는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경례와 의식 등을 찬양하게 했던 이유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가들은 민족주의의 우파 입장들을 대변하면서, 폭력이나 힘 철학 등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두 파시즘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사상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행동은 이레덴티즈모의 빈약했던 공간과 사고들을 채워주면서, 이레덴티즈모의 성격이 제국주의적 팽창과 잃어버린 땅에 대한 전쟁 형식을 띤 회복운동의 성격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사상들은 신생 이탈리아 왕국의 대외팽창정책의 추진의 토대가 되었으며, 수세적이던 이탈리아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특히 삼국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이탈리아 외교정책노선 역시 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레덴티스트들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던 시기였다.

관련 조직들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수가 확장되었다. “우리의 이탈리아(Italia Nostra)”나 “형제자매 땅(Corda Frates)”과 같은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시위나 사건들을 일으킴으로써 이들의 주장이 단지 지식인이나 특정 단체의 전유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국면들은 다가올 제 1차 세계대전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수복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 과시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쟁 종결을 위한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서 이탈리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었던 주요한 기준이었다.

4. 파시즘과 극우 민족주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 파시즘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파쇼¹¹⁾란 명칭으로

11) 이탈리아어로 파쇼(fascio)란 본래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를 의미하는데, 19세기말 남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소요와 농민 봉기 등에서 일단의 그룹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후 카포레토(Caporetto) 전투에서 패배한 뒤 정부에서 국민적 에너지 결집을 촉구하는 선전문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체적이고 군국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한 것은 무솔리니가 1919년 밀라노에서 발족한 전투연대(Fasci di Combattimento)라는 단체를 이끌면서부터였다. 특히 1919년 선거에서 전투연대는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고, 무솔리니도 자신의 고향에서 낙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무솔리니는 다소 사회주의적

각종의 사회단체들은 있었지만, 이도 그나마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그리고 하나의 주의(主義)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국가의 묵인과 자본가들의 암묵적 지원에 기인한 결과였다. 사회주의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국가와 애국심이 주된 이데올로기 요소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20년대 이탈리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배경이 될 수 있었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상처뿐인 영광만을 안은 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그토록 원하던 옛 영토의 수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차대전의 승전국들은 파리 평화회담에서 유럽의 세력균형과 보상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이탈리아는 트렌토, 남부 트롤, 이스트라를 얻기는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피우메와 달마치아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에 단눈치오라는 우익적 성향의 민족주의 문학가가 의용대를 이끌고 피우메를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애국심과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를 고취시킨 것은 단눈치오와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우익 인사들이었지만, 결국 이를 지원했던 것은 당시의 정치가들과 산업자본가들이었다.

이때까지도 파시즘은 여전히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었고, 피우메 점령과 같은 사건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한 극우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파시즘의 창시자인 무솔리니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감지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최초의 파시스트 단체인 전투연대(Fasci di Combattimento)가 1919년 밀라노에서 창설되었을 때만해도 그 강령에 포함된 내용은 다분히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상원제의 폐지, 농민들을 위한 토지분배, 유권자 모임을 표방하는 등 그 기조는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것이었다. 이는 무솔리니가 본래 사회당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하였고, 사회당의 일간지 『전진(Avanti!)』에서 편집장으로 일했다는 경력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무솔리니의 파쇼 단체들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것은 1919년 선거가 끝난 뒤였다. 단 한 명의 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한 정치단체가 되자 무솔리니는 자본가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단눈치오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우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1920년 강령의 개정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요소를 최우선시하여 우익과 보수의 지원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사회주의와 이탈리아 민족과 국가의 위대성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과 노동조합들은 공공의 불만과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격대상이 되었다.

파시즘의 부상은 바로 이와 같은 여러 정황과 맞물리면서 갑자기 전국적인 현상으로

성향의 단체를 우익단체로 탈바꿈시켰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떠올랐다. 산업 자본가들과 국가의 묵인과 지원은 사회당의 몰락 그리고 아직 공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계급의 분해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파시스트들은 공격의 대상을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과 언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의 사무실과 본부 및 저택 등을 방화하거나 파괴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고 사회당은 1920년 20만 명이던 당원 수가 22년 10월에는 2만 5천명이 안될 정도로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노동총동맹 역시 조합원수가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파시스트의 불법적 폭력은 갈수록 더해갔다. 파시스트 국민당의 당수인 무솔리니도 이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파시스트 행동대원들의 폭력성은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22년 5월 1일 노동절에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자들과 정치가들은 이들 파시스트에 공격을 받아 10여명이 죽는 폭력이 자행되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를 방관했다.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미명하에 파시스트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파시스트의 폭력에 맞서 22년 7월 31일에 총파업이 선언되었지만, 노동총동맹의 지도자들은 파업을 거부하였고 이에 파시스트의 역공이 시작되자 대중에 의한 마지막 저항이라 할 수 있는 7월의 총파업은 실패로 돌아갔다. 파시스트에 의한 권력 장악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결국 그 해 10월 28일 나폴리에서 개최된 파시스트 전당대회에서 일단의 젊은 파시스트들이 군중에 의한 국가수립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로마로 진군하여 비 오는 로마의 관공서를 무력충돌 없이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¹²⁾.

‘로마진군(La Marcia su Roma)’이라는 사건은 이렇게 발생했고, 밀라노에 있던 무솔리니가 30일 로마로 내려와 무혈입성 함으로서 39세의 약관의 나이에 수상에 올라 국가 전체를 파시스트에 의한 합법적 지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권력에 오른 무솔리니는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회유 정책과 입장을 견지하고 보수 세력과 자본가들 그리고 카톨릭 세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파시즘의 철학과 사상적 기반을 위해 젠틸레(Gentile¹³⁾)를 앞세워 사상과 이념을 정비하고 크로체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과 단눈치오와 같은 민족주의 계열의 보수적 우익 인사들 그리고 미래파¹⁴⁾들을 아울러 명실상

12) 당시 왕은 무장도 안 된 폭도들이었던 이들 파시스트 청년단원들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며, 무솔리니 자신도 이에 대한 성공여부를 확신하지 못해 밀라노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볼 정도로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역사적 사건의 하나였다. 후세 역사가들은 만약 파시스트들의 로마진군을 왕과 정부가 진압했다면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지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파시스트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3) 조반니 젠틸레(Giovanni Gentile)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철학을 완성시킨 인물로 무솔리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서 전체적인 파시즘의 방향정립에 힘을 쓴 인물이었다.

부한 지배권력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렇게 시작되고 형성된 이탈리아 파시즘은 민족주의와 국수주의 그리고 보수주의 등이 결합한 형태를 띠었으며, 일반적으로 힘의 철학이나 행동 철학을 중요시하였고, 로마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강력한 민족국가의 출현을 열망하였다. 또한 그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을 채택하였고, 특히 당대의 유럽 강대국들에 의해 이미 시작된 식민지 개척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무솔리니는 이러한 군국주의에 바탕한 민족주의를 극우주의를 내세우면서 1920년대 유럽의 파시즘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파시즘이 현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도 불구하고 전후청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가톨릭과 파시스트 세력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처벌을 받았을 뿐, 대부분의 세력들이 재기를 기다리며 민족주의를 내세운 정당과 사회세력이 되었다. 청산되지 못한 파시스트 잔재 세력은 무솔리니 외손녀인 알레산드라 무솔리니(Allessandra Mussolini)도 함께 가입되어 있던 MSI였다. MSI는 유사 파시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신파시스트 계열의 정당으로 197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다. 알미란테(G. Almirante)가 선거 참여를 선언하면서 창당한 이 정당은 1972년 총선에서 8.7%를 득표하였다. 이후 일정 수준의 지지와 득표를 기록하면서 선거 참여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이탈리아 극우정당을 대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MSI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알미란테의 후계자였던 피니(Gianfranco Fini)는 이탈리아 국가를 민족주의적인 통합국가를 지향하고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통과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의미의 극우정당을 표방하였다. 피니가 이끄는 MSI는 1992년 총선에서 5.4%를 득표하면서 새로운 정당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1992년 마니폴리테 이후에도 새로운 신파시스트 정당인 AN(Alleanza Nazionale)를 창당하면서 우파 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삼색횃불 운동(il Movimento Sociale Fiamma Tricolore)이라는 정당이 1994년에 창당되어 본격적인 민족주의 우파정당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우파 및 극우 정당들이 새로이 이탈리아 형제당(Fratelli d'Italia)을 탄생시켰지만, 그 정치적인 세력은 축소되기도 하였다.

14) 1909년 마리네티(Marinetti)에 의해 선언된 미래주의 운동에 가담한 일련의 예술가들을 가리킨다. 마리네티와 함께 『예수의 생애』를 쓴 빠파니Papini 등이 주도한 미래주의 운동은 기계에 대한 찬양과 국가를 고양시키는 예술적 작업을 했으며, 파시즘의 예술적 기반으로 무솔리니에 협력하였다.

Ⅲ.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의미: 분리와 통합의 기로에서

파시즘 체제의 경험이 존재하는 이탈리아에서 민족이나 국가를 공식적으로 내세워 다시 한번 파시즘 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민족동맹(AN)이나 삼색햇불운동과 이탈리아형제당, 그리고 레가노르드와 같은 극우정당이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극우 민족주의 이념이 현대 이탈리아 사회에서 현실정치의 중요한 축이리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중심이 된 분리주의와 카탈루냐 주의 독립 움직임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분리주의 운동 혹은 지역주의와 많은 부분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탈리아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체제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제도 변화와 더불어 공화국의 형태로 구분한다. 제1공화국 체제는 해방 이후 100% 비례대표제를 채용하였던 시기로 1992년 마니폴리테 사건으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이다. 제2공화국은 100% 비례대표제에서 25%의 비례대표제와 75%의 단순다수소선거구제로 바뀐 선거법으로 탄생한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제3공화국은 다시 100% 비례대표제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이러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 중에서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주로 민족주의 우파 계열의 정당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족주의 우파 정당들은 지역에 따라 특별 자치주에서는 지역주의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지역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성격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리아 민족주의 우파 정당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의 <표1>에서 비교한 것과 같다. 이들 민족주의 우파 정당들은 정당의 이념이나 노선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은 AN(민족연맹)으로 현재 이탈리아형제당이라는 당명으로 재창당하였다. 앞서 언급한 MSI의 후신으로 주요 노선으로는 자유시장 체제에 사회적 경제 도입,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진흥, 가족의 역할과 가치 고양, 법치와 질서 및 안전과 관련한 국가적 정의 수호 등이다.¹⁵⁾ 두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극우정당은 삼색햇불사회운동당(Movimento Sociale-Fiamma Tricolore, MsFt)이다. 민족동맹(AN)에 비해 보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와 민족을 강조하는 정당으로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정체성 확립, 강력한 민족 국가의 성장과

15) 열거한 주요 가치들은 이탈리아형제당의 홈페이지 중에서 “이탈리아 내부의 도전”이라는 강령 속에 녹아 있는데, 총 16가지의 주요 주제로 분류된 이러한 가치들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http://www.fratelli-italia.it/?page_id=7484 (검색일: 2017. 12. 28.).

발전모색, 이탈리아 역사와 전통 보존, 이탈리아 공동체 사회의 정통성 보호 등이다. 세 번째는 북부동맹으로 북부 분리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이다. 특히 이탈리아 특유의 지역문제인 남부문제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정당으로 현대 이탈리아 정치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발전된 정당이다. 북부동맹의 주요 이념 노선들은 다음과 같다. 파다나 평원을 중심으로 분리하여 독립하거나 독립수준의 자치를 추구하는 분리독립주의, 연방주의, 반이민자정책, 인종차별주의, 세계화 반대, 유럽통합회의주의, 유럽통합 반대 등이다.

〈표 1〉 이탈리아 민족주의 우파정당들의 주요 특징과 내용 비교표

정당	이탈리아 형제당(AN)	삼색햇불사회운동당(FSFT)	북부동맹(LN)
이념적 특징	삶의 정신적인 비전과 가치 중시, 자유시장 체제에 사회적 경제 도입,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진흥, 유럽통합의 근본주의 고양, 가족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법치와 질서 및 안전 중시, 전통적인 정의 가치의 준수, 다원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의 옹호, 새로운 유럽의 지향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정체성 확립, 강력한 민족국가 도모, 이탈리아 역사와 전통 보존, 가족 중심의 이탈리아 공동체 사회의 정통성 보호, 이탈리아의 주권성 강조, 유럽통합 방향의 근본주의 회귀 주장	분리독립주의, 연방주의, 반이민자정책, 인종차별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 유럽통합회의주의와 유럽통합 반대
주요 지지자층	남부 농민, 파시즘 지지자들, 민족주의 계열의 보수주의자, 토지 소유자들, 주부들	민족주의 우파, 애국을 중시하는 국가주의자들, 극우 보수주의, 가톨릭옹호론자들, 전통적인 보수주의 우파 지지자들	북부 자영업자, 북부 인종주의자, 북부 분리주의자, 전문직을 가진 중상 이상의 계층
이데올로기적 좌표	극우 보수주의	극우 민족주의, 민족 자본주의	극우 인종주의 및 지역주의
주요제안 정책	공공의 인종주의 정책 표방, 반 이민정책과 이민 동화주의정책 지지, 불법 이민자 정책 강화, 외국인 노동자 입국허가제 등	개방적 이민정책 반대, 이주노동자 입국과 허가 정책의 엄격화, 외국인 사회보장 수혜 금지, 금융세계화 반대, 민족 자본주의 체제 강화	이민허가제, 반세계화 정책, 연방제, 유로사용 폐지,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

출처: 저자정리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당들에 대한 이념이나 노선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현대 이탈리아에는 헌법에 보장한 특별주의 존재로 인해 민족주

의의 개념이 소수 민족에 의한 분리자치주의의 원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는 학문적인 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헌법상 '보충성 원리'¹⁶⁾에 의거하여 헌법 제 11조, 제 118조, 제 119조, 제 128조, 1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방주의라는 중심체계에서 그것을 보충하는 자치와 분리 원칙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정법상으로 이탈리아에서 지방자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2년 지방자치 법 시행에 따른 시기였다. 이어진 법 개정으로 1977년에 이르러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행되었고, 지속적인 보완과 입법 등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양한 제도와 법률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개의 주 중에서 헌법상 그 지위와 자치적인 성격을 보장하고 있는 5개 특별주의 존재이다(Giorgio 1996, 3-4). 이탈리아의 20개 주 중에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치성의 기준에 따라 헌법에서 부여한 일반 주(피에몬테, 롬바르디아, 베네토, 리구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토스카나, 움브리아, 마르케, 몰리제, 아브루조, 라치오, 캄파냐, 칼라브리아, 바실리카타, 풀리아)의 성격을 갖는 15개의 주와 5개의 특별주(발레 다오스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프리울리 줄리아 베네치아, 시칠리아, 사르데냐)가 있다.

보통 일반 주는 중앙정부에 덜 종속적이며,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주민들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자체적인 입법권이나 조세권에 대하여 일반 주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갖는 주를 의미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5개의 특별 주는 15개의 일반 주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표준어 선택이나 세부적인 제도 등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선거법에서도 예외적인 규정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배분의 최저득표율도 전국정당에 적용하는 기준과 다를 정도도 지방정당과 지방정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실정법의 보장은 지역에 따른 분리주의가 이탈리아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거이자 원천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민족적인 통합이 가장 강했던 시기가 1920년대 파시즘이라는 점과 지역주의와 소민족 자치주의를 법과 제도에서 보장할수록 분리주의와 자치주의가 더욱 원심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현대적 해석의 딜레마를 더해주고 있다. 오랜 역사적 배경에서 발생한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를 상징하고 있는 '남부문제'와

16) 보충성의 기본원리는 개인, 주 및 사회의 기본적인 분할에 기초하고 있다. 보충성의 고전적 개념정의는 가톨릭의 사회문제에 대한 가르침에서 발견 된다: "사회나 국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에 관계된 일은 스스로 처리하라. 사회는 다만 보충적으로만 개입한다."
 ○;런 원리는 국가의 계층적인 구조에도 적용된다.... 일련의 법들은 "공평한 평등분배"를 하도록 하며,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박응격 외 2006, 39-40).

이레텐티즘이라는 실지회복운동에 기원을 두고 ‘남부문제’에 반하여 발생한 ‘북부분리주의 운동’, 그리고 지역의 자치와 소수 민족의 보호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분리자치운동’, 상당한 자율성에 기반하고 현재보다 더욱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를 주창하는 ‘연방주의운동’, 사르데냐의 일부 지역 등에서는 이웃 인접 국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귀속운동(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방으로 귀속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등의 복합적인 운동이 존재하면서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설명을 난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남과 북의 분단 상황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 민족주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통일’이 최대선이고 ‘분단’은 극복해야 할 가치로 여기고 있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이탈리아 사례는 ‘분리’와 ‘통합’이 동등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분석했던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통해 한국적인 상황과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다양한 측면들과 내용들은 과거지향적인 전통적 민족주의의 내용과 이념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현재의 이탈리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김종법. 2012. 이탈리아 현대정치사회. 바오출판사.
- 김종법. 2003. 이탈리아 남부문제와 그람쉬. 인문사회과학연구 4, 51-69.
- 김종법. 2004. 이탈리아 남부문제의 역사-카부르에서 니피까지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이탈리아어문학 15, 85-132.
- 김종법. 2006. 이탈리아 남부문제에 대한 정치사상적 기원 -치코피에서 그람쉬까지.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75-101.
- 김종법. 2007. 이탈리아 이레덴티즘의 역사와 기원. 동북아역사재단.
- 박응격 외. 2006. 서구 연방주의와 한국. 도서출판 인간사랑.

- Mantelli, B. 1994. La nascita del fascismo. Fenice 2000.
- Chabod, F. 1951. La politica estera italiana dal 1870 al 1890. Laterza.
- Giorgio, Brosio. 1996. I sistema del Governo locale in Italia, in Il Governo locale. Il Mulino.
- Salvatorelli, L. 1969. Sommario della storia d'Italia. Einaudi.
- Sandona, A. 1932. L'irredentismo nelle lotte politiche e nelle contese diplomatiche italo-austriache. Zanichelli.

- <http://www.irredentismo.it>
- <http://www.unitalia-movimento.it>

● 투고일: 2018.02.11. ● 심사일: 2018.02.12. ● 게재확정일: 2018.02.19.

Italian Nationalism: Dilemma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KIM Jongbub (Daejeon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modernly the Italian nationalism. This paper consists of various concepts and contents understanding the formation of a modern nation. It includes some explanations and understandings on the Risorgimento, Irredentismo, Fascism, Establishment of Italian Republic, Southern Problem and Northern Separatism. And also it explains the modern signification of Italian nationalism and separatism relating with northern minor nations. At last it will be concluded the modern meaning and contents of Italian nationalism in the modern Italian society.

〈Key words〉 Italy, Nationalism, Risorgimento, Fascism, Separation, Integration.